

2021

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 (상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 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상편 ◀

1. 마음을 담은 언어

- (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9문제) -----1쪽
(2)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 (32문제)-----20쪽

2. 능동적 읽기와 주체적 해석

- (1)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40문제)-----39쪽
(2) 허생전 (51문제)-----63쪽
(3) 초신성의 후예 (32문제)-----103쪽

3. 우리말 바로 쓰기

-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64문제)-----122쪽
(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65문제)-----145쪽
(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 (11문제)-----168쪽

4. 문학의 갈래와 구조

- (1) 향수 (50문제)-----177쪽
(2) 종탑 아래에서 (58문제)-----199쪽
(3) 두근두근 내 인생 (41문제)-----237쪽
(4) 수오재기 (43문제)-----264쪽

◆빠른 전체 정답 -----286쪽

◆해설 -----289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상편 ◀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상편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은 난이도가 낮은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로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쓴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 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상편 ◀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딱 뿌러지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 이걸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망망의 숲 한켠에 있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이를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매번 확인서>

나는 이번 () 교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교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적 정리

Ⅰ ‘대화’와 ‘대화의 원리’의 개념

- ① 대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
- ② 대화의 원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태도나 규칙

순서 교대의 원리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하기
공손성의 원리	상대방을 존중하며 공손하게 말하기

Ⅱ ‘대화’를 잘 하기 위한 듣기·말하기 방법

①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 갖추기

‘언어 예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임.

→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언어 예절을 지켜 말해야 함.

■ 상황에 따른 언어 예절

사과할 때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는 말을 분명히 하기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대방을 탓하지 않기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하기
부탁할 때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 살피기
	부담 덜 느끼게 공손하게 말하기
	부탁하는 이유 설명하기
건의할 때	부탁할 때처럼 상대방의 상황 살피고 공손하게 말하기
	공적인 상황에서는 적절한 높임 표현 사용하고 정중하게 표현하기

■ 대상을 고려한 언어 예절

-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청자)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기
-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존중하고 배려하며 말하기

②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이나 나이 등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식에 차이가 남.

■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음.

↳ 상대방이 어떤 듣기·말하기 특성을 지녔는지 고려하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함.

■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

세대별 차이	청소년 세대는 신어와 준말을, 노년 세대는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쓰는 것처럼 세대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르게 나타남.
지역별 차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녹아 있는 다양한 방언이 존재함.

↳ 개인의 듣기·말하기 방법은 세대와 지역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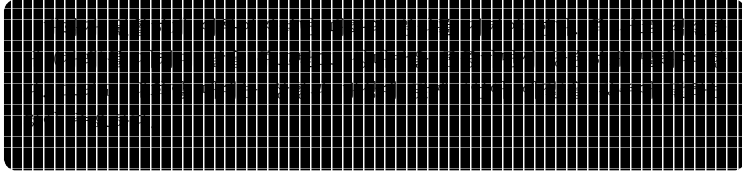
↳ 공적인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위해 표준어를 사용함.

1-(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론편]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라인 워크

1.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생각하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2.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말하기 방법이 다양한 까닭은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적 성향, 세대나 지역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3. (가)와 (나)에서 인물들 사이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말해 보자.

■ 일요일 아침, 강유는 연극 동아리 정기 모임에 입고 나갈 옷을 빌리려고 언니 시진의 방으로 들어간다.

강유: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탐색 중이며) 언니, 오늘 이 옷 빌려줘.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시진: (당황하며) 어? 그 옷은 내가 무척 아끼는 옷이라 좀 그런데…….

강유: (실망하며) 그렇구나. 오늘 내가 입고 나가면 좋을 텐데. 얼마 전에 산 내 바지하고도 잘 어울리고.

시진: 근데 넌 왜 항상 빌려 달라는 사람이 이런 식이야? 참, 그러고 보니 저번에 옷 빌려 가서 엉망으로 해 놓고 사과도 안 했잖아.

강유: 아……. 그랬었나? (역지로 옷을 지으며) 그건 미안. 이제 됐지? 그럼 이 옷 빌려줄 거지?

시진: (기분이 상하여)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말을 들으니 빌려줄 마음이 싹 사라졌어.

■ 주원이가 대표로 활동하는 연극 동아리는 달마다 연극을 단체로 관람한다. 이번에 관람할 연극을 정하려고 할 때, 주원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께 말한다.

주원: 선생님, 이제부터는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께서 알아서 정해 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왜 힘들지?

주원: 서로 취존이 잘 안 되거든요. 내가 고른 거 노잼일 것 같다니, 취향이 안습이라느니, 그런 말이 오가서 기분도 안 좋구요.

선생님: (어리둥절하여) 응? 무슨 말이니?

- **가:** '강유'는 언니에게 부탁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앞세워 말했다. 또한 부탁하는 까닭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공손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사과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나:** '주원'은 선생님께 건의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살피지 않았으며, 건의하는 까닭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세대에서 주로 쓰는 '취존', '노잼', '안습'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가)
 명찬 : 연호야, ㉠오늘 나 대신 청소 좀 해 줘.
 진호 : 음, 나 오늘 옆 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명찬 :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제제하게 굴지 말고 좀 해줘.
 연호 : 야, 너는 부탁하는 애가 뭐 그러냐?

(나)
 소희 :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 있었는데 왜 안 왔어?
 재영 : 아, 맞다. 깜빡했다.
 소희 : 너 기다리느라 한 시간 동안 다들 아무 것도 못했어.
 재영 :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부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안.
 소희 :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동성고등학교 (서울)

1. (가)의 ㉠과 ㉡에서 지키지 않은 공손성의 원리를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 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 ②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
- ③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며 말하기
- ④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기
- ⑤ 동의하며 말하기

동성고등학교 (서울)

2. (나)의 ‘소희’가 ㉢과 같이 말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재영이 부적절한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② 재영이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않았다.
- ③ 재영의 표정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 ④ 재영이 자신의 잘못임에도 상대 탓을 하였다.
- ⑤ 재영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보낸 사연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은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대화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다음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함께 살펴보면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 대화할 때에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혼자 계속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화의 원리이죠. 그리고 대화할 때에는 무엇보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가리킵니다.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와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하는 내용이 올바르더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을 함께 듣고,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다) ‘사과’와 관련한 재영이의 사연을 들어 봅시다.

제가 친구에게 잘못된 일이 있어 사과를 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사과의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소희 :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 있었는데 왜 안 왔어?

㉠ 재영 : 아, 맞다. 깜빡했다.
 소희 : 너 기다리느라 한 시간 동안 다들 아무것도 못했어.
 재영 :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부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안.
 소희 :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라) ‘부탁’과 관련한 명찬이의 사연을 들어 봅시다.

부탁할 때에도 방법이 있나요? 제가 부탁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명찬 : 연호야, 오늘 나 대신 교실 청소

㉠ 좀 해 줘.

연호 : 음, 나 오늘 옆 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명찬 : 그냥 좀 바빠서 그래. 껌껌하게 굴지 말고 좀 해 줘.

연호 : 야, 너는 부탁하는 애가 뭐 그런가?

(마)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법과 관련한 사연을 들어 봅시다.

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과 대화할 때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제도 급히 집을 나가는 길에 옆집 할아버지와 마주쳤는데요, 어디 가느냐고 물으셔서 친구 생파에 간다고 했더니 “친구가 생파를 가져다 달래?”라고 하셔서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아버지께서 서울로 전근을 가시는 바람에 저도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고향 사투리가 편한데, 전학을 가면 서울말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예요. 지금까지 쓰던 사투리를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최근에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지나가면서 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라고 했어요. 친구는 “그렇구나.”하고 말더군요. 저는 같이 떡볶이를 먹자는 뜻으로 말을 꺼낸 건데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니깐 서운했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해하는 게 이상한가요?

(바) 지금까지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화는 말로써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듣기·말하기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어 나갈 수 있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여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김해삼방고등학교 (경남)

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라디오 방송 담화로 문어체를 사용하여 공적인 말하기의 모습이 나타난다.
- ㉡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는 원인을 세대별로 조사하여 듣는 이에게 알려주고 있다.
- ㉢ 가상의 사례를 통해 문제에 대한 청자의 호기심과 주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 ㉣ 질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 ㉤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김해삼방고등학교 (경남)

4. ㉠~㉣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의 재영은 변명과 상대방을 탓하는 태도로 말하기를 하고 있다.
- ㉡ ㉡의 명찬은 순서교대의 원리에 어긋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 ㉢ ㉢은 세대 간의 언어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 ㉣ ㉣은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언어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 ㉤은 개인의 성향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

김해삼방고등학교 (경남)

5. 위의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에서 부탁하는 말하기를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술하십시오.

(2) 윗글을 통해서 볼 때, 듣기·말하기를 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인동고등학교 (경북)

6. 다음 사연을 바탕으로 재영이에게 해 줄 조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연>

제가 친구에게 잘못된 일이 있어 사과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사과의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소희 :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 있었는데 왜 안 왔어?
 재영 : 아, 맞다. 깜빡했다.
 소희 : 너 기다리느라 한 시간 동안 다들 아무것도 못 했어.
 재영 :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었거든.
 (부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조장인 내가 모임 전에 한번 더 연락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안.
 소희 :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조언>

재영아, ①사과를 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아. 그리고 ②변명을 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또, ③대화 중에는 순서를 지키며 말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더불어 ④그 상황에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해. 언짢은 표정으로 말한다면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 마지막으로 ⑤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한다면 사과의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지?

인동고등학교 (경북)

7. 다음 사연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지나가면서 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라고 했어요. 친구는 “그렇구나.”하고 말더군요. 저는 같이 떡볶이를 먹자는 뜻으로 말을 꺼낸 건데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서운했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해 하는 게 이상한가요?

- ① ‘나’는 직설적이 화법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 ② ‘친구’가 간접적·우회적 화법을 사용하여 ‘나’는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 ③ 지역마다 다른 어휘와 말투를 이해하지 못해 ‘나’와 ‘친구’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였다.
- ④ 서로의 말하기 방식을 미리 알고 배려했다면 ‘나’가 서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나’의 말하기 방식이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친구’의 말하기 방식보다 낫다고 볼 수 있다.

인동고등학교 (경북)

8. 다음 대화 상황에서 ‘은호’에게 가장 필요한 공손성의 원리를 각각 바르게 연결한 것은?

<대화 상황>

(가) 선생님 : 은호야, 너 정말 수학을 잘 하는구나.
 은호 : 당연하죠. 저 원래 수학을 잘 하거든요. 지난 시험에서도 100점을 받았어요.

(나) 은호 : 내가 어제 수업에 빠져서 그런데, 노트 좀 빌려줘.
 민석 : …….

(다) 은호 : 우석아, 너 말이 너무 빨라서 내용을 제대로 못 들었어.

(라) 은호 : 미주야, 어제 토론 대회에서 실수가 너무 잦더군요. 솔직히 별로였어. 본선에서는 더 노력하렴.

(마) 수지 : 은호야, 토론 대회 장면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떨까? 토론 대회의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은호 : 수지야, 말도 안 돼. 토론 대회 장면을 공개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공손성의 원리>

- ㉠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 ㉡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
- ㉢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기
- ㉣ 동의하며 말하기
- ㉤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며 말하기

- | | (가) | (나) | (다) | (라) | (마) |
|---|-----|-----|-----|-----|-----|
|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⑤ | ㉤ | ㉡ | ㉣ | ㉣ | ㉠ |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보낸 사연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중략>

대화할 때에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혼자 계속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화의 원리이죠. 그리고 대화할 때에는 무엇보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가리킵니다.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와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하는 내용이 올바르더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첫째,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듣기·말하기 방법은 세대나 지역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선 청소년 세대는 신어, 준말 등을 자주 쓰고, 노년 세대는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 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므로 서로의 표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말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른 말하기 방법의 차이는 지역 방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역 방언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므로, 지역 방언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다만 공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표준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듣기·말하기 방법은 사회·문화적 특성 외에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특성일 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화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법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금정고등학교 (부산)

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윗글은 대화와 표준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윗글은 TV 프로그램 방송 담화를 옮긴 것이다.
- ③ 윗글은 문어체로 격식을 갖추어 정중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윗글은 개인적 성향에 따른 말하기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진행자의 질문을 통해 얻은 청취자의 답변을 활용하여 글이 전개되고 있다.

금정고등학교 (부산)

10. 윗글을 바탕으로 알아본 올바른 대화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② 공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어를 쓰며 말해야 한다.
- ③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나의 대화 목적을 변경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④ 대화할 때에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그에 적절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세대나 지역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이 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

금정고등학교 (부산)

11. 대화의 언어예절에 따라 아래 재영이의 대화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 ②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과와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게 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잘못에 조장인 소회를 탓함으로써 소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
- ④ “어쨌든 미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로 사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 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다면 사과의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배정고등학교 (부산)

12. 다음 중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의하며 말하기는 청자와의 일치점을 낮추는 말하기이다.
- ②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기는 화자의 부담을 높이는 말하기이다.
- ③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기는 청자의 부담을 낮추는 말하기이다.
- ④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는 화자의 이익을 낮추는 말하기이다.
- ⑤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며 말하기는 청자의 이익을 높이는 말하기이다.

배정고등학교 (부산)

1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철수 : 미안한데, 목소리를 좀 크게 말해 주지 않을래? 내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영희 : 미안해. 내 목소리가 좀 작았구나.

병재 : 철수랑 영희는 정말 사이가 좋아 보여. 그 비결이 뭐야?

미라 : 내 생각에는 둘이 낮을 가리는 걸 보니 아직 별로 안 친한 것 같아.

정아 : 미라야, 너는 왜 매사 부정적이니?

- ① 철수는 찬동의 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 ② 영희는 관용의 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 ③ 병재는 겸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 ④ 미라는 동의의 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 ⑤ 정아는 요령의 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배정고등학교 (부산)

14.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진희 :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선생님 : 응, 괜찮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기 앉아서 편하게 말해 보렴. 무슨 일이니?

진희 : 제가 얼마 전에 미희랑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요. 미희가 노래를 너무 크게 들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미희한테 “그렇게 크게 들으면 귀가 아프지 않아?”라고 물었더니 미희가 “아니.” 라고 하고 바로 책으로 눈을 돌려서 갑분싸 됐어요.

선생님 : ‘갑분싸’가 무슨 말이니?

진희 :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희한테 따졌더니 미희는 그냥 귀가 안 아파서 안 아프다고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울먹이며) 솔직히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선생님 : (달래듯이) 진희는 미희가 진희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상했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그런데 미희도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을 거야.

- ① 선생님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 ② 선생님은 진희의 말과 감정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
- ③ 진희는 선생님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현을 사용했다.
- ④ 진희는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
- ⑤ 진희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언어 차이로 미희와 다투게 되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과 대화할 때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제도 급히 집을 나가는 길에 옆집 할아버지와 마주쳤는데요, 어디 가느냐고 물으셔서 친구 생파에 간다고 했더니 “친구가 생파를 가져다 달래?”라고 하셔서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 다음 달에 아버지께서 서울로 전근을 가시는 바람에 저도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고향 사투리가 편한데, 전학을 가면 서울말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예요. 지금까지 쓰던 사투리를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다) 최근에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지나가면서 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라고 했어요. 친구는 “그렇구나.”하고 말더군요. 저는 같이 떡볶이를 먹자는 뜻으로 말을 꺼낸 건데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니가 서운했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해지는 게 이상한가요?

(라) 지금까지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법과 관련한 사연을 들어 보았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첫째,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듣기·말하기 방법은 세대나 지역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선 청소년 세대는 신어, 준말 등을 자주 쓰고, 노년 세대는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 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므로 서로의 표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말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른 말하기 방법의 차이는 지역 방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역 방언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므로, 지역 방언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다만 공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표준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듣기·말하기 방법은 사회·문화적 특성 외에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특성일 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화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법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의 사연을 보내온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나요?

지금까지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화는 말로써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듣기·말하기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부평고등학교 (인천)

15.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생각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주로 구어체를 사용하여 친근하게 이야기하듯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③ 라디오 방송 형식으로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 ④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법한 구체적인 대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진행자는 사연을 보낸 사람들의 말하기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바로 잡아주고 있다.

부평고등학교 (인천)

16. (가) ~ (다)의 사연에 맞는 근거를 (라)에서 바르게 찾은 것은?

- ① (가) - ㉠ ② (가) - ㉡ ③ (나) - ㉢
- ④ (나) - ㉣ ⑤ (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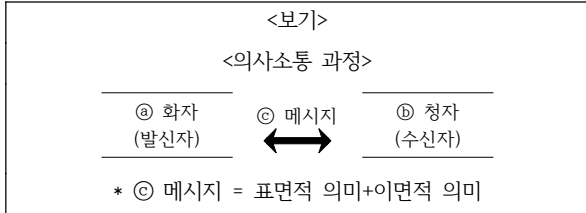
부평고등학교 (인천)

17. (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는 그 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 ②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도 말하기 방식에 차이가 있다.
- ③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사적인 대화에서는 삼가야 한다.
- ④ 듣기·말하기 방법은 사회·문화적 특성 외에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⑤ 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법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면 성공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부평고등학교 (인천)

18. (라)와 <보기>를 참고하여 (다)의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다)에서의 ㉡의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 (다)의 ㉠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을 서술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이를 대화의 원리라고 한다. 대표적인 대화의 원리로는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등이 있다.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할 때 서로 예의 바른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리는 다음처럼 다섯 가지의 규칙으로 이루어진다.

- 요령의 격률 :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린다.
- 관용의 격률 :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린다.
- 찬동의 격률 :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린다.
- 겸양의 격률 :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한다.
- 동의를 격률 :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다.

그리고 협력의 원리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협력의 원리는 다음처럼 네 가지의 규칙으로 이루어진다.

- 양의 격률 :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
- 질의 격률 :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관련성의 격률 :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 태도의 격률 :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

한편 순서 교대의 원리는 대화할 때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서로의 역할이 순환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혼자 말을 너무 길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순서에 함부로 끼어들거나 가로채지 않아야 한다. 또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대화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창조고등학교 (경기)

19.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미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현희 : 수미야, 어제 귀걸이 샀다며? 그 귀걸이…….

상미 : 참, 현희야. 수행평가 다 했어? 난 아직 준비 못했어.

현희 : 응. 아까 끝냈어. 수미야, 귀걸이 언제 할거야?

수미 : 응 그거…….

상미 : 현희야, 넌 진짜 좋겠다. 나는 언제 하지?

수미 : 상미야, 나도 이야기 좀 하자.

- ①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켜 서로 적절하게 말하도록 신경을 써야 해.
- ② 협력의 원리를 지켜 상대방에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해.
- ③ 협력의 원리를 지켜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져.
- ④ 협력의 원리를 지켜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좋지.
- ⑤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리는 것이 필요해.

경기창조고등학교 (경기)

20.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대화를 평가할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명찬 : 연호야, 오늘 나 대신 청소 좀 해줘.

진호 : 음, 나 오늘 옆 반 애들이랑 축구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명찬 :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제제하게 굴지 말고 좀 해줘.

연호 : 야, 너는 부탁하는 애가 뭐 그러냐?

명찬 :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부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반장인 네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어쨌든 미안.

연호 :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ㄱ. 명찬이가 연호에게 부담을 느끼게 부탁을 한 것은 '요령의 격률'에 어긋난다.
 ㄴ. 명찬이는 연호를 닮는 말을 함으로써 '양의 격률'에 어긋나는 말하기를 하였다.
 ㄷ. 명찬이는 부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다.
 ㄹ. 명찬이가 변명을 한 것은 '질의 격률'에 어긋난다.
 ㅁ. 연호는 명찬이가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지 않아 사과에 의심을 품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경기창조고등학교 (경기)

21. <보기>는 글쓰기 상황과 학생이 작성한 개요이다. 이를 검토한 선생님이 조언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문제 상황 :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서로 어울리기보다는 다들 휴대 전화로 게임에만 몰두함.
- 통계 자료 : 전교생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라는 내용의 설문 조사를 한 후 통계로 산출함㉠
- 예상 독자 : OO고등학교 학생들㉡
- 주제 : 학교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서론 : 학생들의 휴대 전화 사용 실태
 2. 본론
 (1) 학교에서 과도한 휴대 전화 사용의 문제점.....㉣
 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짐
 나. 무절제한 휴대 전화 사용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음
 (2) 휴대 전화 사용을 절제하기 위한 방안.....㉤
 가. 등교 후 휴대 전화를 담임 선생님께 맡기기
 나. 휴대 전화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일주일 강제 압수
 3. 결론 : 학업과 우정을 위한 휴대 전화 사용의 절제

- ① ㉠ :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차라리 친한 친구 몇 명만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② ㉡ : 네가 쓴 글을 교지에 실는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글을 읽을 수 있겠구나.
 ③ ㉢ : 요즘 그렇지 않아도 휴대 전화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적절한 주제로구나.
 ④ ㉣ : 문제점이 두 가지밖에 없을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들어보는 것은 어떨니?
 ⑤ ㉤ :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방법보다 너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광덕고등학교 (경기)

22. 언어예절과 화법의 다양성을 고려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주원이가 대표로 활동하는 연극 동아리는 달마다 연극을 단체로 관람한다. 이번에 관람할 연극을 정하려고 할 때, 주원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께 말한다.

주원 : 선생님, 이제부터는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께서 알아서 정해 주세요. (인상을 찌푸리며) 저희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 왜 힘들지?
 주원 : 서로 취존이 잘 안 되거든요. 내가 고른 거 노잼일 것 같다니, 취향이 안습이라니, 그런 말이 오가서 기분도 안 좋고요.
 선생님 : (어리둥절하여) 응? 무슨 말이니?

(나) 최근에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지나가면서 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라고 했어요. 친구는 “그렇구나.”하고 말더군요. 저는 같이 떡볶이를 먹자는 뜻으로 말을 꺼낸 건데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니가 서운했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해 하는 게 이상한가요?

- ① 학생1 : (가)에서 '정해주세요'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해주시길 수 있나요?'로 바꿔서 공손히 말하면 건의하는 이유는 생략해도 된다.
 ② 학생2 : (가)에서 주원이가 부드러운 표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부탁할 때에는 '강요'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좋아.
 ③ 학생3 : (가)에서 선생님이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이 있어.
 ④ 학생4 : (나)에서 친구의 표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야.
 ⑤ 학생5 : 얼마 전에 생파 간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생파를 알아듣지 못하셨어. (가)는 그 경우와 비슷한 사례 같아.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ㅎ과 만나는 예사소리를 거센소리 되게 함
 ㄱ+ㅎ=ㅋ, ㄷ+ㅎ=ㅌ, ㅂ+ㅎ=ㅍ, ㅅ+ㅎ=ㅆ
 -국화[구과], 만형[마형], 잡히다[자피다], 젓히다[저치다]

40.④

- ① ‘죄’는 ‘쥬’를 발음할 때보다 혀를 낮추어야 한다.
- ② ‘돌’은 ‘달’을 발음할 때보다 혀를 높여야 한다.
- ③ ‘개’는 ‘구’를 발음할 때보다 입술을 펴야 한다.
- ⑤ ‘개’도 달리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41.②

▶‘문고리’는 어간+어미의 결합이 아니기에 24항의 예로 적절치 않음.

▶응, 헛갈리지 마!◀

어간 vs 어미 (★★)

용언(동사, 형용사) 활용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먹고, 먹으니, 먹자...): ‘먹’→(어간) / ‘고, ‘으니’, ‘자’→(어미)

43.②

▶㉔은 받침 중 일부가 뒤의 초성 자음과 만나 축약된다.

44.③

▶탈락(겹받침 탈락) 첨가(ㄴ첨가) 교체(비음화)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자음군 단순화 vs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ㄱ, 자음 군 단순화: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되어 발음 됨.
 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 발음은 ㄱ, ㄷ, ㅂ, ㄴ, ㄹ, ㄹ, ㄹ, ㄹ 중 하나로 교체 발음 됨.
 (ㄱ, ㅋ→ㄱ / ㄷ, ㅌ→ㄷ / ㅂ, ㅍ→ㅂ / ㄴ, ㄸ, ㄹ, ㄺ, ㄻ, ㄼ→ㄴ)

값[갑], 삶지[삼찌], 앓다[안따]

(‘ㅃ’에서 ‘ㅍ’탈락, ‘ㄹ’에서 ‘ㄹ’탈락, ‘ㄴ’에서 ‘ㄴ’탈락)

밖[박], 꽃[꼇], 부엌[부억] (ㄱ→ㄱ, ㅌ→ㄷ, ㅋ→ㄱ)로 교체

(ㄱ, ㄷ, ㅂ, ㄴ, ㄹ)은 쌍자음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됨.→(각각 ㄱ, ㄷ, ㅂ, ㄴ, ㄹ로 교체됨!) ⇨탈락되는 것이 아님!

받침 발음의 탈락이나 교체냐에 따라 <자음 군 단순화=탈락=겹받침 적용>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된소리 적용 포함>으로 구분되지만 결국엔 <자음 군 단순화>도 받침이 ㄱ, ㄷ, ㅂ, ㄴ, ㄹ, ㄹ, ㄹ, ㄹ 이외에는 발음 될 수 없다는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자음 군 단순화>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45.①

▶㉔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음. 피동 사동 접사 ‘기’가 포함된 것은 ‘된소리되기’예외임.

▶응, 헛갈리지 마!◀

피동 접미사 vs 사동 접미사 (★★)

ㄱ.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ㄴ.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46.⑤

	단어	발음	달라진 음운	음운 변동의 종류
㉠	량(良)+심(心)	[양심]	ㄹ 탈락	두음법칙
㉡	산림	[살림]	ㄴ→ㄹ	유음화
㉢	맨- + 입	[맨닙]	ㅇ→ㄴ	ㄴ첨가
㉣	똑같이	[똑까지]	ㄱ→ㄱ ㅌ→ㅌ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두음법칙 (★)

ㄱ. ‘ㄹ’과 ‘ㄴ’이 ㄴ, ㄷ, ㄹ, ㄹ, ㄹ 앞에서 사라짐. ㄴ. ‘ㄹ’이 ‘ㄴ, ㄷ, ㄹ, ㄹ, ㄹ, ㄹ, ㄹ’ 앞에서 ‘ㄴ’으로 바뀜.
 (녀자→여자, 량심→양심, 래일→내일..)

2. ㄴ’음 첨가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니불], 한-여름[한:녀름], 국민-윤리[국민:닐리]

47.②

▶벼훅이[벼훅치]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연음현상 (★)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가 올 때 앞 음절의 종성이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는 현상을 말한다.

48.④

▶㉠, ㉡, ㉢는 두 개의 단모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중모음화임.

49.①

- ② 밝는[밤 : 는]
- ③ 얽거나[역꺼나]
- ④ 넓죽하다[넙쭈카다]
- ⑤ 넓둥글다[넙퐁글다]

50.②

▶‘음운’은 말의 뜻을 구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임.

▶응, 헛갈리지 마!◀

음운 vs 형태소 vs 단어 (★★)

ㄱ.음운: 말의 뜻을 구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음, 모음)

ㄴ.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단어, 어간, 어미, 접사)

ㄷ.단어: 혼자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 (품사)

51.②

(나): 탈락, (다): 축약, (마): 첨가

52.③

- ① 학문 : ㅊ+ㅁ → ㅇ+ㅁ (가)에 해당.
- ② 좁히다 : ㅂ+ㅎ → ㅍ (다)에 해당.
- ④ 해돋이 : ㅊ+ㅣ → ㅈ+ㅣ (라)에 해당.
- ⑤ 서라 : 서-+-어라 → 서-+-라 (나)에 해당.

53.④

- ① '측량'[측냥]만 (가)의 예를 보여준다.
- ② '살펴'는 (마)의 구체적 예를 보여준다.
- ③ '복잡하고'[복자파고]만 (다)의 구체적 예다.
- ⑤ '보여'는 [보여]로만 발음되어 (마)의 구체적 예로 볼 수 없음.

54.③

▶끝을[끄틀]: 연음법칙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연음현상 (★)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가 올 때 앞 음절의 종성이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는 현상을 말한다.

56.⑤

- ① 싫어[시러] → 자음군 단순화 ② 피+어[퍼] → 축약
- ③ 연세, 여자 → 두음법칙 ④ 꽃꽂이[꽂꼬지], 살살이[살사치] → 구개음화. 떳떳이[떨떠시]는 구개음화가 아님.

57.①

- ② 밟고[밥꼬], 말살[말쌀] ③ 맑게[말게] ④ 맛있다[만딤따], 디근에[디근세] ⑤ 통닭이[통다기], 등용문[등용문]

58.⑤

▶대통령[대통령]: 비음화. 나머지는 ㄴ첨가임.

59.⑤

▶㉠ 물난리[물란리→물랄리] ㉡ 곧이듣다[고지듣다→고지듣따]

- ① ㉠: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 거센소리되기
- ② ㉠: 자음군 단순화로 1개 마이너스, ㉡: 축약으로 1개 마이너스.
- ③ ㉠: 거센소리되기로 한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남.
- ④ ㉡: 유음화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자음군 단순화=겹받침 발음> (★★)

1.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은 항상 위의 자음이 탈락한다.

값[갑], 없[업따], 묵[목], 외곶[외골], 앓[안따], 할[할따], 앓는[안는], 잃는[일른]

2. ㅃ은 '뱃'만 제외하고 항상 위의 자음이 탈락한다.

여뿔[여덜], 뵈다[널따] / 예외 : 뱃[뱃따]

3. ㅆ, ㅉ은 항상 앞의 자음이 탈락한다.

삶[삼], 굶다[곰따], 읊다[음따]

4. ㅄ은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만 제외하고 항상 앞의 자음이 탈락한다.

닭[닥], 읽다[익따] / 예외: 읽고[일꼬], 읽게[일께]

60.⑤

- ▶㉠ 굳이[구지]: 구개음화, 만며느리[만며느리]: 비음화, 국물[비음화], 받는다[반는다] / ㉡ 좋다[조타], 옳다고[올타고], 많다[만타]: 축약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1.비음화 (★★★)

:비음 아닌 자음(ㄱ, ㄷ, ㅂ)이 비음(ㄴ, ㄹ)을 만나, 비음(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

(국물→궁물, 꽃말→꼇말→꼇말, 밥물→뱃물)

2.구개음화 (★)

ㄷ, ㅌ+ㅣ, ㅣ 계열의 모음 → ㅌ, ㅋ (모던-모진, 굳이-구지)

3.<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격음화> (★★)

:ㅎ과 만나는 예사소리를 거센소리 되게 함

ㄱ+ㅎ=ㅋ, ㄷ+ㅎ=ㅌ, ㅂ+ㅎ=ㅍ, ㅌ+ㅎ=ㅋ

-국화[구과], 말형[마형], 잡히다[자피다], 젓히다[저치다]

61.③

▶조음 방법이 바뀐 것임.

▶넣어뒀, 패던 공략 ◀

조음 위치(입술소리, 잇몸소리 등)가 바뀌는 것 ↔ 조음 방법(파열음, 마찰음 등)이 바뀌는 것

62.④

- ① (가): '잡그-+-어 → 잠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 '신녀성(新女性)'에서 '녀'로 발음되던 '女'가 '여성(女性)'에서는 '여'로 발음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다): 문장의 종결 어미인 '-이오'가 반모음이 첨가되어 '-이요'로 발음할 수 있게 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마): '생각하지 못한 → 생각지 못한'은 거센소리되기가 아님.

63.①

▶꽤요(○)

3-(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 1.①
- ② 깎두기→깎두기 ③ 야단법석→야단법석 ④ 출산률→출산율 ⑤ 년도→연도

2.④

- ① 수 없이 ② 것뿐이니까요 ③ 수천 개의 ⑤ 될 겁니다

3.⑤

▶체언 뒤에 사용된 ‘만큼’은 조사로 붙여 써야 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조사의 종류 (★★★)

- ㄱ.격조사: 다양한 격을 형성.(이/가, 을/를, 에/에서, 이다~)
- ㄴ.접속조사: 낱말을 이어줌. (와/과, 이랑, 하고~)
- ㄷ.보조사: 낱말의 뜻을 더해 줌. (도, 만, 조차~)

4.③

▶하든데→하던데

5.②

- ㉠ ‘마개’는 어간과 접미사를 붙여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함.
- ㉡ ‘날날이’는 ㉠제20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형대로 표기함.
- ㉢ ‘끄트머리’는 품사가 바뀐 것은 아니며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임.

6.②

ㄷ: ‘타고 오면 돼’가 맞음, ㄹ: ‘나중에 빼요’가 맞음

7.⑤

▶보조 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임.

▶응, 헛갈리지 마!◀

본용언 vs 보조 용언 (★★)

- ㄱ.본용언: 자립성 있고 단어로 인정.(동사, 형용사 일체)
- ㄴ.보조 용언: 자립성 없고 본용언에 의미를 더함.

‘사과를 먹어 보자.’

사과를 먹자 (○)→본용언 / 사과를 보자 (×)→보조 용언

‘학교 갈 차비가 없다. 돈을 받아 가자.’

돈을 받자 (○)→본용언 / 학교에 가자 (○)→본용언

9.⑤

ㄱ: 더드미→더듬이, ㅂ: 갑짜기→갑자기

10.②

▶‘달힌’은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기에 독서의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11.①

- ② 외형울(×)→외형률(○) ③ 선렬(×)→선열(○) ④ 확울(×)→확률(○), 실패울(×)→실패율(○) ⑤ 시청울(×)→시청률(○)

▶응, 헛갈리지 마!◀

룰, 렬 vs 울, 열 (★)

1) 받침이 있는 말 다음에는 룰, 렬로 적는다. (앞 글자에 받침이 있을 때)
-법룰, 능룰, 출석룰, 성장룰, 합격룰, 확룰, 동물, 음룰 등

2) 모음 뒤에서 울, 열로 적는다. (앞 글자에 받침이 없을 때)
-비울, 자울, 계울, 규울, 타울, 효울, 조울 등

3) ‘ㄴ’ 받침 뒤에 울, 열로 적는다. (앞 글자에 받침이 있을 때는 룰, 렬이지만 ‘ㄴ’ 받침일 때는 울, 열)
-선울, 운울, 환울, 전울 등

13.②

▶‘절뚝거리다’는 ㉠ 규정의 예시가 아님.

14.③

- ▶③은 모두 어법에 맞도록 한 것임.
- ① 하늘, 오리는 소리대로 적은 것임.
- ② 비, 날씨는 소리대로 적은 것임.
- ④ 하양은 소리대로 적은 것임.
- ⑤ 모두 소리대로 적은 것임.

15.③

	기호	띄어쓰기의 적절성	판단 근거
㉠	ㄱ	x	‘번’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다.
㉡	ㄴ	x	‘공사 중’은 두 단어이다.
㉢	ㄹ	x	‘커녕’은 조사이다.
㉣	ㅁ	x	‘대’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이다.

16.⑤

▶두음 법칙이 적용된 ‘공염불’이 맞는 표현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두음법칙 (★)

ㄱ. ‘ㄹ’과 ‘ㄴ’이 |, ㅌ, ㄷ, ㅊ, ㅍ, ㅍ 앞에서 사라짐. ㄴ. ‘ㄹ’이 ‘ㅌ, ㄷ, ㅊ, ㅍ, ㅍ, ㅍ’ 앞에서 ‘ㄴ’으로 바뀜. (녀자→여자, 량심→양심, 래일→내일..)

17.④

- ㉠ ‘구름’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할 때 ‘구르미’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임.
- ㉡ ‘女性’을 원래 음을 밝힌 ‘녀성’으로 적지 않고 ‘여성’으로 적는 것은 두음법칙을 적용해 소리대로 적은 것임.

18.⑤

▶ ‘씩뚝’으로 적은 것이 ㉠의 규정을 따를 때,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 해당함.

20.④

▶‘막다+애=마개’에서 ‘막-’은 명사가 아닌 동사이므로 ㉠ 규정의 예시가 될 수 없음.

21.②

(1)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예) 먹어, 좋아	㉠
(2)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않는다. 예) 드러나다, 사라지다	㉡
(3)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예) 떡이, 손이, 팔이	㉢
(4)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어깨, 거꾸로	㉣
(5)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예) 여자(女子), 요소(尿素)	㉤

23.④

▶ 'ㄴ'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기에 '답석'으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임.

24.③

- ① '먹어, 먹은'은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함.
- ② '미달이, 끝이'는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함.
- ④ '사라지다, 쓰러지다'는 앞말의 어간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함.
- ⑤ '예의(禮義)'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에 해당하고 '혼례(婚禮)'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에 해당함.

▶ 응, 헛갈리지 마! ◀

어간 vs 어미 (★)

용언(동사, 형용사) 활용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먹고, 먹으니, 먹자...): '먹'(어간) / '고, '으니', '자' (어미)

25.②

▶ '같이'는 격조사임.

26.④

▶ '나간 지'에서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씀. '늪은지'에서 '지'는 어미이므로 붙여 씀.

▶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의존 명사의 종류 (★)

- 1) 주어성: 수, 나위 (먹을 수가 없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 2) 보편성: 분, 것 (오늘 새로 오신 두 분. 마실 것 좀 도와.)
- 3) 부사성: 만큼, 대로 (할 만큼 했다. 본 대로 그려라.)
- 4) 서술성: 따름, 뿐 (고마울 따름이다. 공부만 할 뿐.)
- 5) 단위성: 말, 근 (쌀 한 말. 쇠고기 한 근.)

27.①

② 서류 보관이 잘되었다.

몸살을 앓더니 얼굴이 많이 안됐구나.

③ 바느질이 잘된 교복을 입고 있다.

경기가 나빠서 장사가 안된다.

④ 파손이 잘 되는 물건이니 살살 만져라.

안되는 사람은 뭘 해도 힘들다.

⑤ 회사를 그만둔 것이 차라리 잘됐다는 기분이 들었다.

무턱대고 남을 비난하면 안 된다.

32.④

▶ (다)는 여섯 개의 단어로 된 문장임. (비, 가, 오니, 꽃, 도, 핀다)

33.①

② 앞=알다+'ㅁ'→원형이 드러나 있지 않음. '곳곳이'에서 '곳곳'은 어간이 아님.

③ '삼발+이'에서 '삼발'은 어간이 아님. ④ '날날+이'에서 '날날'은 어간이 아님. ⑤ '집집+이'에서 '집집'은 어간이 아님.

34.①

▶ 얼음(○)

35.①

▶ '드러나다'는 '들'의 의미가 사라졌으므로 '들어나다'로 적지 않는다.

36.①

▶ 짹짹하게→짹짹하게

39.⑤

① '먹이' 원형을 밝히어 적었으므로 ㉠에 해당함.

② '며칠'은 소리대로 적었으므로 ㉡에 해당함.

③ '몹시'는 '몹시'로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④ '미답다', '우습다'는 소리대로 적어 ㉢에 해당함.

40.⑤

▶ '여자대학'에서 '여'는 원래 '녀'로 제시된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

41.④

▶ 날날이는 제20항에 해당함.

43.②

▶ '들+어+나다'에서 '들'의 본뜻이 멀어져 소리대로 '드러나다'로 적음.

45.③

▶ '커녕'은 보조사로 앞말과 붙여써야함.

44.②



▶ '산새'는 명사+명사의 결합으로 ㉠에 해당하지 않음.

47.④

▶ 성공을 → 성공률

48.④

- ① 그 선수가 믿고 있는 것은 실력뿐이다.
- ② 친구는 도착한 지 두 시간 만에 집을 떠났다.
- ③ 기회 있는 대로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 ⑤ 오랜 만에 집에 왔더니 방바닥이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49.③

▶ '쓰러지다'는 '쓸+어지다'를 소리대로 적은 것임.

50.③

▶ 동사에 '-이'가 결합하여 단어의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래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51.②

- ① 햇님→해님: 명사+접사의 구성이기에 사이시옷 없음.
- ② 대가: 한자어+한자어 구성이기에 사이시옷 없음.
- ③ 등갯길→등곶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초성이 된소리로 발음되니 사이시옷 있음.
- ④ 수돗물→수돗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초성이 ㅁ이니 사이시옷 있음.
- ⑤ 자릿세→자릿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초성이 된소리로 발음되니 사이시옷 있음.

52.③

- ① 더드미→더듬이 ② 나뭇가지→나뭇가지 ④ 뵈다→뵈다
- ⑤ 날날히→날날이

53.⑤

▶ '일찍이'가 맞음

55.②

▶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면 같은 글자로 적기에 '쓱쓱쓱'으로 적음.

56.⑤

- ① 십 분 만에 나만 포기하고 말았다.
- ② 여기에서부터 두 시간은 걸어야 할 거야.
- ③ 나는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왔어.
- ④ 너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참 안됐다.

58.⑤

- ① 설레이는→설레는 ② 무릎→무릎 ③ 고기집→고기집 ④ 암돼지→암돼지

59.①

▶ 으시였다→으스됐다

60.③

ㄷ.쌍용→쌍룡 ㄹ.가정의예→가정의례

61.④

- ① 그▽개는▽송아지만큼▽크다.
- ② 내가▽가진▽것은▽이것뿐이다.
- ③ 시험에▽떨어지다니▽참▽안됐다.
- ⑤ 월드컵에서▽한국▽대▽독일▽축구▽경기가▽참▽흥미로웠다.

62.③

▶ '데'빠른 나머지는 조사라서 앞 말에 붙여 씀.

- ① 여행을▽함께▽할▽수밖에▽없다.
- ② 공부를▽하기는▽커녕▽잠만▽ 잤다.
- ④ 그▽사람은▽그▽사람대로▽할▽말이▽있다.
- ⑤ 그는▽우리같이▽맑은▽영혼을▽지니고▽있다.

65.②

- ① 13항과 관련됨. ③ 깎두기→깎두기 ④ 푹푹푹푹→푹푹 푹푹 ⑤ 환률→환율

3-(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

1.⑤

▶ ⑤만 말의 조심성을 나타내고 나머진 적극적 말하기의 중요성을 나타냄.

2.②

▶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속어를 사용한 건 아님.

4.④

▶ ④는 말의 부정적 측면을 나머진 말의 긍정적 측면을 나타냄.

8.②

▶ 선생님은 학생이 과거의 담화 관습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소통 태도를 성찰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

9.③

▶ 헤리가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은 없음.

10.④

▶ 과거의 '담화 관습'은 현재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함.

11.③

▶ 남을 평하는 일은 반드시 삼가는 것과 관련됨.

4-(1) 향수

1.④

▶고향의 정경이 대조된 것은 아님.

2.②

▶㉠은 '밤바람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말을 달리고'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청각의 시각화 같은 감각의 전이를 통해 밤바람 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빈출 비유법 (★★★)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줄줄줄)
-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3.④

▶대상: 아내

4.①

▶㉡: 청각의 시각화이며 ㉠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각의 시각화가 있음.

- ① 찬물을 째- 퍼붓고는 (촉각)
- ② 푸른 물소리 (청각의 시각화)
- ③ 콩밭에 뿌려 둔 노래 (청각의 시각화)
- ④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청각의 시각화)
-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청각의 시각화)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시의 심상과 감각 (★★★)

- ㄱ.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 ㄴ.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 ㄷ.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 ㄹ.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 ㅁ.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2. 공감각 vs 복합 감각 (★★)

-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5.④

▶각 단계의 의미가 인과관계로 긴밀하게 대응 시키는 건 아님.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열거(나열) vs 반복 vs 대구 (★★)

- ㄱ.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ㄴ.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 ㄷ.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2.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